

서울 12만2천 가구에 '태양광발전소'

올해 보급사업에 총 245억 지원 예정...보조금 41만7천원 4월부터 선착순 접수...모듈 길이·무게 제한 안전성 강화



서울시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 올해 시비 245억원을 지원, 총 12만2000 가구에 51.4MW의 태양광을 보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서울지역 총 17만

가구에서 118MW 규모의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그 중 베란다형이 7만8000 가구, 주택형이 3만8000 가구, 건물형이 5만8000 가구를 차지한다.

올해 12만2000 가구에 태양광이 보급되면 서울지역 총 29만여 가구에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가동하게 된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원은 베란다형(300W 기준)이 41만7000원이다.

자치구 추가 보조금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되는 요인을 반영해 책정됐다. 자치구 보조금을 포함하면 시민 수혜 보조금은 전년 대비 약 10% 인하된다.

시는 2020년까지 보조금을 매년 약 10%씩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올해는 베란다형에 비해 발전용량이 큰 주택과 건물형 태양광 보급에 집중해 보급 물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택형(1~3Kw)과 건물형(3Kw 이상)의 경우 Kw당 6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안전성을 위한 제품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올해부터는 거치식 베란다형의 경우 주택 난간이 받는 하중 부담을 낮추기 위해 KS 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서도 가로 길이 1.7m, 무게 1.8kg 이하의 제품만 보급된다.

풍속 50m/s의 내풍압 시험을 통과한 제품으로 전기공사업체 면허를 보유한 전문 시공 업체를 통해 시공된다.

태양광은 미세먼지 발생이나 탄소배출 걱정이 없고 간편한 관리로 전기요금 절감효과도 누릴 수 있다. 월 290kWh 사용 가구에서 베란다형 300W 설치 시 최대 월 6000원 가량의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서울 시민은 누구나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미니태양광 보급업체가 선정 완료 되는 4월초부터 11월말까지 선착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뉴스스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이 지난 19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54일째 인천공항에 구금된 난민, 루엔도 가족의 입국과 체류를 허가하고 아동 인권을 보장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서 숙식' 앵골라 가족, 난민심사 소송 이주민 박해 이유로 한국 왔지만 입국 거부...내달 첫 기일

앵골라 정부의 이주민 박해를 이유로 한국에 왔지만 입국이 거부돼 공항에서 55일째 숙식을 해 결 중인 앵골라 가족들이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앵골라 국적 루엔도 은쿠카씨 가족 6명은 지난 15일 인천지법에 난민신청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루엔도씨 가족은 앵골라 정부가 콩고 이주민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받는 차별을 견디지 못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8일 입국이 불허됐다. 이후 항공사에 여권을 반납한 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55일째 머물고 있는 상태다.

루엔도씨 가족은 난민 인정 회부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았지만, 사유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사단법인 두루의 이상현 변호사는 "출입국외국인청이 처분 사유로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 신청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명백한 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조사도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난민과함께공동행동 측이 공개한 서신에 따르면 루엔도씨는 "우리는 전혀 겪어보지 못한 환

경에서 살고 있다. 아이들은 잘 때에도 처음 겪어보는 겨울의 추위에 떨고 있다"며 "현재 한계에 이르렀고 우리들도 인간이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곳 공항에서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루엔도씨 가족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은 인천지법 행정1부가 심리하며, 첫 기일은 다음달 7일 오전 11시45분에 열린다. 통상 사건에 비해본 불회부 결정이 정당한지를 다루는 소송 결론은 5~6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부는 루엔도씨 가족의 입국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난민 심사 불회부 사유를 통역인을 통해 전달하고 결정서 역시 서면으로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 인권 보호 측면에서 해당 항공사의 특별한 관리를 요청했다"며 "항공사에서도 1일 2회 상황을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또 이들이 환승구역에 머물게 된 이유는 아동을 동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출국대기실 입실 대신 본인 의사에 따라 아동이 자유로도록 환승구역에서 머물게 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뉴스스

서울시, 향후 10년간 7兆 투입해 경전철 6개노선 신설

균형발전 고려한 비강남권 철도사업 우선 추진

서울시가 향후 10년간 약 7조원을 투입해 경전철 6개 노선을 신설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철도교통 소외지역을 연결한다는 취지다.

시는 20일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용역결과를 발표하며 "경제적 타당성 최소기준을 만족하며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높은 노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노선안을 선정, 2028년까지 추진해 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전철 6개 노선을 신설한다. 기존 기본계획 노선 중 추진이 지연된 면목·목동·난곡·우이신설연장선 등 4개노선과 서부선 그리고 새로 계획한 강북횡단선이 꼽힌다.

강북횡단선은 완급행 열차 운행이 가능한 25.72km 노선으로 '강북의 9호선' 기능을 수행한다. 이 노선은 동쪽으로는 청량리역에서 1호선, GTX-C, 면목선, 경의중앙선과 연결되고 서쪽으로는 5호선과 연결된다. 3호선, 6호선, 우이신설선, 서부선, 9호선과 환승 가능하다.

강북횡단선은 환경훼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북한산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를 통과하지 않는다. 대신 세검정로, 정릉로 하부 등을 대신도 터널을 통과한다.

면목선은 기존 신내~청량리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며 청량리역에서 강북횡단선과 환승할 수 있게 했다. 목동선·난곡선·우이신설연장선은 기존 노선을 유지하며 계획 일부 수정됐다. 서부선은 기존 새절~서울대입구역 구간에 대피선을 2개 추가해 완급행 열차 운행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시는 4호선 급행화와 5호선 지선간 직결화를 추진한다. 4호선 급행열차를 투입해 철도 이용률을 높이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공사 중인 하남선을 고려해 서울 동남부를 지나는 5호선과 하남시를 직결 연결하는 구간이 신설된다.

서부선 남부연장노선과 신림선 북부연장노선이 신설된다. 이로써 여의도와 서울대 정문 앞에서 환승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서울시 도

시철도망구축계획이 실현되면 철도 통행시간은 평균 15% 단축되고 지하철 혼잡도는 평균 30% 감소되며 철도 이용 가능한 신규 수혜지는 약 40만명 증가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10분 내 철도이용 가능지역은 현재 68%에서 75%로 확대된다. 철도역 접근이 어려웠던 행정동은 기존 170개에서 104개(40.1%→24.9%)로 줄어 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이었던 동북권·서북권·서남권 시민의 철도이용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교통수단 부담률은 현재 66%에서 75%까지 올라(지하철 수단분담률은 39%→50%), 대기오염이 약 15% 감소될 것이라고 시는 분석했다.

향후 10년간 추진되는 이 계획에 투입될 사업비는 7조2302억원이다. 국비 2조3900억원, 시비 3조9438억원, 민간사업비 8986억원으로 사업비를 조달한다.

시는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4월 중 국토교통부에 사업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계획으로 매년 약 7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지하상가 제품 온라인으로 살 수 있다

앞으로는 서울 지하철역에 입점해 있는 상가에서 파는 물건을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이하 김태호)는 지하철역 입점 소상공인의 판매 채널 다각화를 위해 온라인 쇼핑 물품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사는 이날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 '카카오'와 업무 협약을 맺는다. 협약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열린다.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과 카카오 이재석 대표 등이 참석한다.

양사는 온라인 쇼핑물 구축·운영, 광고·핀촉을 위해 협력한다.

양사는 3호선 교대역과 경복궁역에 창업센터를 운영해 지하철역 입점 상인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과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창업센터에는 상품 촬영을 위한 제작실(스튜디오)과 택배 불품 적재를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

지하철 입점 상가 외 일반 사업자도 유료로 창업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쇼핑물 입점도 가능하다.

서울시 "일자리카페서 취업 준비하세요"

서울시는 20일 상반기 공채시즌 맞아 일자리카페에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일자리카페는 종로, 신촌을 비롯한 청년밀집지역에 위치해 있다. 지난해 8만2000명의 취업준비생이 이용했다. 취업을 준비하는 만 15세~30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스터디룸 대여가

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3월부터는 취업목표달성을 위한 '집중진설턴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진담진설턴트가 5주간 취업목표에 맞춰 밀착진설턴트를 제공하고 연중 사유관리까지 취업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취업할 때까지 지원된다.

뉴스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